



# 참사람 36.5°C

Vol. 49 | 2025년 2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CONTENTS 목차

---

## 발행일

2025년 2월 4일 화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

## 참사람 36.5°C 온라인

chamsaram.org



## Cover Story

매년 2월 3일은 국가가 지정한  
'한국수어의 날'입니다.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수어', 그 중에서도  
'한국수어'를 기념하는 날이지요.  
손짓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의 삶을 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한 뼘 더 가까워지는,  
서로를 이해하는 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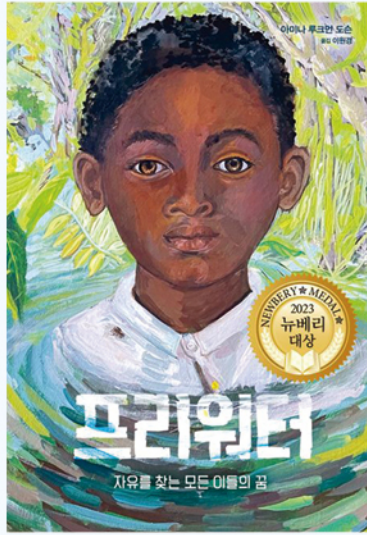
참사람을 말하다  
손짓으로 전해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  
수어手語

안영희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서초구지회장/  
서강대학교 외래교수



08

내가 만난 참사람  
‘커피 할머니’가 알려준 것들  
글\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양재준



10

책으로, 참사람으로  
「프리워터」 독서편지  
먼 길을 걸었을 호머에게  
여의도중학교 성시온

‘프리워터’는 어떤 책?  
글\_권현주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덕평생학습관  
정보자료과장(사서)



13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별이 쏟아지는  
겨울 밤하늘 속으로



16

재단 소식  
2025 체.인.지  
한일교류 현장 이야기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는  
이들 간의 여정



18

재단 소식  
제8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교보교육재단  
2024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손짓으로 전해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언어, 수어 手語



‘수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언어’라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어는 언제부터 사용했나요?’, ‘수어는 전 세계 공통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시작되면 아마도 난감해질 확률이 높다.

지난 2020년, 「한국수어교재 ‘수화’」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교재는 1963년 서울농아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농인들이 사용하는 관용적인 수어를 체계화하여 한글로 설명한 책이다. 수어기호를 해설한 설명서로서, 인위적·방법적·문법적인 수어 대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 사용되어 온 수어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해설해줌으로써 수어의 통일을 기해 보자는 목적에서 간행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한국 농인들의 언어생활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자, 교육 및 사회에서 농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수화’를 시작으로 ‘한국표준수화사전 편찬위원회’가 국가 주도로 탄생된 것이 1979년, 다년간의 노력 끝에 ‘표준수화사전’이 출판된 시기가 1982년이다. 국가가 나서서 수어사전을 만들기 약 20년 전, 학교 일선 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교재가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다. 그리고 2021년, 이 교재는 드디어 국가등록문화재 제804호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수어는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한국수어의 날’이 있는 2월은, 수어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기 적절한 시기일 것이다.



**안영희**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서초구지회장/서강대학교 외래교수

세 살 때 청력을 잃었지만 노력 끝에 수화와 구화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소통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KBS 다큐멘터리 '이것이 인생이다'에 출연했으며 서강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한국농아인협회 서울시 서초구지회장 및 수어통역센터장, 수화 전문 잡지 '아름다운 손짓'의 편집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청각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2004년 한국장애인인권상과 2009년 서울시 복지상 장애극복 대상 수상으로 이어지며, 2024년 한국수어의 날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표창을 받아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신의 삶을 통해 청각장애를 향한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도전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 수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수어는 인간의 역사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기본적인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손짓과 표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대에는 장애를 저주받은 존재로 여겨 농인(청각장애인)들이 박해를 받아왔기에 농인들이 고유의 언어를 창조할 기회가 없었다.

1620년, 스페인의 후안 파블로 드 보넷(Juan Pablo Bonet)이 수어 교육 방법 및 수어 알파벳을 가르치는 최초의 수어책을 출판하면서 체계적 발판이 마련된다. 오랜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수어는 19세기에 와서 자연언어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으나, 1880년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 농교육자 회의'에서 구화법이 더 우세하다는 편협한 결론 끝에 그 지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많은 나라들의 청각장애특수학교들은 청각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청인(聽人)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하여 잘못된 교육을 이어왔으며, 그 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어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수어(手語, Sign Language)는 농인(聾人, Deaf people)과 청인(聽人, hearing people)간에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수어 또한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음성(소리) 언어에 자음과 모음, 문법과 억양이 있듯이 수어에도 수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다섯 가지의 수어소가 있다. 모두 시각적 변별이 가능하며, 두 손의 형태를 뜻하는 수형(handshape)은 30개 정도가 있고, 수어 행동의 위치를 뜻하는 수위(location)는 23개 정도가 있으며, 손의 움직임과 양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모두 49개의 수동(movement)이 있고, 손바닥, 손등, 손가락의 방

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향(orientation)과 손이나 손가락 이외에 다른 신체 부위의 동작 혹은 표정을 포함하는 비수지기호(non-manual signs or facial expression)로 이루어진다. 청인이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몸짓이나 제스처 등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체계적인 언어인 것이다.

다시 말해 수어는 얼굴의 표정과 몸의 방향, 공간의 활용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이다. 손짓, 몸짓, 표정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의 수어가 똑같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국가마다 언어가 만들어진 구성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수어 또한 같을 수가 없다. 문화가 다르다 보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손으로 표현(fingerspelling)하는 지숫자와 지문자를 표현하는 법도 나라별로 다르다. 한국수어와 미국수어가 다르며, 음성언어에 말투가 있는 것처럼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말투가 존재하고 사투리도 존재한다.

### 우리나라 수어의 역사

우리나라는 1909년 미국에서 온 의료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여사에 의해 평양에 맹아(盲啞-맹인과 농인)학교가 설립되면서 최초의 농교육이 시작된 동시에 한국수어의 기초가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는 조선총독부가 제생원 맹아부(盲啞部)를 설치하고 수업 연한이 5년제인 아본과(啞本科) 학생들에게 일본수어 등 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펼쳤으며, 1920년에는 일본농아인협회 조선지부인 '조선농아협회'가 발족되었다. 광

복이후에는 1946년 '조선농아인협회', '대한농아협회' 등이 설립되어 문맹 청각장애인 퇴치운동을 펼쳤으며, 수어를 통한 연극발표 등으로 한국수어를 크게 발전시켜왔다. 그 후 1947년 4월 서울농아학교(現국립서울농학교) 초대교장 윤백원(尹伯元)에 의해 창안된 '한글지문자'의 보급으로 한국수어 정립에 큰 발전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농교육 현장에서 구화법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수어교육이, 1991년 교육부의 '한글식 표준수화' 발행을 통한 한국수어의 문법적 체계 정립, 2000년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의 한국수어의 표준화 연구 및 수어의 체계적 연구 및 기반 마련,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한국수화언어법(약칭 한국수어법)의 제정 등의 굵직한 역사를 통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수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농인들의 권리와 문화적 정체성 존중에 필수적인 요소다. 무엇보다 농인과 청인 간의 이해증진과 사회통합 촉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화이자 언어이다.

## 수어, 그리고 나

스물 일곱의 어느 가을날, 부모님께서 수어를 배워 보면 어떨겠는지 물어오셨다. 수어로 봉사를 하면 좋겠다면서 말이다. 그때까지 나는 농인이 이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수어를 언어로 사용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어를 처음 배울 때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때는 사진, 영상자료도 없었다. 글로 쓰인 책을 보며 선생님께서 수어 동작을 보여주시는 게 다였다. 물어볼 기회도 없고 이해 또한 어려운데 선생님은 말이 너무 빠르셔서 입 모양 보기가 어려웠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기초반 3개월을 마치고 중급반에 올라갔다. 그 시점에 청각장애인 단체 행사에 우연히 참석할 기회가 생겼는데,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수어를 거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기초반에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마치 내가 지구라는 별에 불시착한 외계인이 된 것 같았다. 이후 중급반에서 3개월을 더 배웠다. 그러자 부모님께서 농인들에게 봉사하며 나의 재능을 나누어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다.

1997년, 나는 국민들에게 수어를 알리는 잡지를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손짓'이라는 제목의 잡지가 탄생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도맡아 했다. 편집을 하고, 인터뷰를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워드로 써달라고 부탁하여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등 1인 7역을 했다. 당시 재직 중이었던 좋은 조건의 받은 퇴직금을 모두 여기에 투자했다. 연예인, 정계인사,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박찬호, 박세리, 히딩크 감독, 김대중 대통령, 김해자, 최수종, 김성령, 송승헌, 최불암, 장동건, 차인표 등이 있었다. 잡지를 본 사람들은 농인 중심의 매거진에 이런 유명인들이 나오는 것이 신선하다고 했다.

잡지를 통해 온 국민들에게 수어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 항상 적자였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개인사비를 들여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더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당시에는 수어통역사가 없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결국 운영난으로 '아름다운 손짓'은 2006년 휴간되었다. 잡지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알아주는 분들이 계신 덕에 수상의 영광도 안았다. 2001년 청각장애인 최초로 한국잡지언론상 편집상을 받았다. 2004년에는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상과 서울사랑시민상 봉사상을 수상했다. 월간 '아름다운 손짓'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대학 강단에서 농인 문화에 바탕을 둔 수화강의를 통해 인권향상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큰 영광이었다.

2002년부터는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나사렛대학교 교양학부의 교수로, 그리고 국립한국복지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아이들을 지도해 왔다. 서강대에서는 2006년부터 <특수교육과 장애의 이해>, <수화의 이해>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는 30대 중후반의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탓에 동안의 외모로 남학생들에게 대시도 많이 받았다. 재미있는 추억이다. 대학 강단에 선 우리 나라 최초의 농인 교수라는 타이틀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며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수어를 알리는 일, 그리고 한국수어통역사와 청각장애인통역사 양성을 위해 매진하는 데는 좋은 격려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2006년부터는 박사과정을 시작했다. 여전히 학력을 무시할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학위가 필요하

다고 느꼈다. 그렇다면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외치는 내 목소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거라 생각했다. 험난하고 힘든 과정들 끝에, 2014년 사회복지학계열에서 최초의 청각장애인으로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배움의 열정으로 청각장애인 1호 박사를 눈앞에 두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소개해주기도 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전문 자문위원을 맡았다. 내가 공부한 것들을 통해 장애인들을 대변하고 싶었고, 수혜적인 복지보다 장애인의 자립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실 박사 논문 시절은 악몽같았다. 논문을 쓰기 전 자격시험을 일곱 과목 봐야 했는데, 한 번에 붙은 과목이 하나도 없었다. 논문 집필이 시작된 이후부터 통과까지도 오래 걸렸다.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를 하셨다. 박사과정 내용을 수어로 통역한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의사소통은 물론 교육 환경이 힘든 상황이었던 나를 조금은 봐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복지현장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동시에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결국 무리한 탓에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맞으며 공부했다. 말 그대로 링거 투혼이었다. 그때 교수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알고 깨우쳐야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열매는 달다. 지금만 힘든 거다."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 주고 약 주시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가르침이다. 그분들이

내 인생의 참 스승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2013년에 박사학위를 통과하고 2014년에 졸업했다.


수어와 함께 한 나의 삶을 반추하며 오늘 날을 그려보니, 걱정과 기대감이 함께 든다. 농인사회 역시 청인사회 만큼이나 기성세대 농인과 젊은세대 농인 간의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 문화적·환경적 차이로 인한 것이다. 서로에게 생소한 단어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동작이 변화된 수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농인 고유의 수어가 점차 사라지고 신조어 또는 현재의 국어대응식 수어(수어 문법 대신 국어 문법대로 수어를 표현하는 것으로, 문장 표현이 어색해질 수 있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우리 농인들의 생명이자 소중한 소통방식인 수어가 자연스럽게 않고 언어 답지 않은 언어로 변질될까 우려된다. 글의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 아주 오래 전부터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서 우리 사회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이러한 수어를 올바른 방식으로 전하고 알리기 위해, 남은 내 삶 역시 농인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비록 작은 발자취일지라도 의미 있는 행적을 남기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를 위해, 오늘도 국민이 아름다운 손짓으로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자 한다.

“농인의 생명의 언어인 수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농문화의 소중한 자산인 한국수어를 보존해 나가는 일에 우리 함께해요.”



※ 유튜브 참고자료

- 우리는 내일, 어제와 오늘의 수어를 만나다! (<https://youtu.be/NYaPPNwyGcM?si=ECCH1BBd7KW3xwrf>)
- 사라져가는 한국수어 보전의 중요성과 다양한 문화의 포용 (<https://youtu.be/Ingb1xEoH8?si=n3il-3cSOB4s8ODz>)
- 수어로 학습할 권리 (<https://youtu.be/IGXN7mPVck?si=iLBSNdIfVMEptL9A>)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커피 할머니’가 알려준 것들

글 \_ 제5회 ‘내가 만난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양재준**

어둡해진 밤이 되면 집에 돌아온 가족들에게 식사를 내어주고 동네를 꽤 오랫동안 걷고 돌아와 22시에 잠에 드시고 새벽 4시30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성실함이 몸에 배신 분이였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는 날에는 한가득 음식을 만들고 주변 이웃들에게 돌렸으며, 동네에 있던 보육 시설에도 음식과 함께 손자·손녀가 입었던 옷들을 쇼핑백 가득 담아 가져다 주곤 하셨다.

‘커피 할머니’는 참으로 정이 많은 분이였다.

15~20년 전에 내가 살았던 동네는 오르막이 스키장 고급 코스처럼 가팔랐고, 길을 기준으로 양쪽에 집들이 오순도순 붙어있던 곳이었다. 그 곳에서 인기 스타는 ‘커피 할머니’였다.

여기서 잠깐, ‘할머니의 별명이 왜 커피 할머니인가?’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설탕과 프림을 듬뿍 넣은 달콤한 커피를 넘쳐흐르게 대접했기 때문이다. ‘커피 할머니’는 삶의 패턴이 매우 규칙적이신 분이셨다. 새벽 4시3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시작으로 마당과 집 안에 있는 화분에 물주기, 가족들을 위한 아침 준비, 집안 청소를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셨다.

가족들이 각자 일터로 돌아가고 여유가 있을 때 당분 가득한 커피 한잔을 마시면서 신문을 읽고, A5 크기 수첩에 적혀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안부를 물어보고는 식사, 동반 쇼핑 약속을 잡는 ‘커피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사람들을 왜 챙기실까?’ 라는 생각도 했었다.

‘커피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 때문이었을까? 가족들이 비어 있는 평일 오후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다. 이웃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지사, 할머니의 지인, 가족, 백화점 판매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사와 간식거리를 아낌없이 주셨으며 가는 길에 반찬을 꼭 손에 쥐어 주며 미소를 지어 보이곤 하셨다.

매주 토요일에 시장을 가면 ‘커피 할머니’는 꼭 길거리에서 연로해진 할머니들이 파는 물건들을 일정량 사기도 하셨다. 그 때 내가 ‘커피 할머니’에게 물었던 질문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맛있는 재료 파는 데 아니예요? 왜 아무도 없고 맛없어 보이는 데서 사요?”였는데 ‘커피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손님이 많은 가게는 우리가 팔아주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단다. 하지만 저 할머니께서는 종일 손님이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니. 조금이라도 그 부담을 덜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할머니에게 존경심이라는 것을 갖게 된 계기였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셨던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 가족들은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본인 건강을 너무 과신했던 탓일까, 눈이 오던 날 저녁, 커피 할머니는 쓰러진 채로 발견 됐고 그 이후로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중학교 3학년, 마냥 어린 아이가 아니었던 나는 어색한 상주복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조문객을 맞이 했다. 할머니의 환한 얼굴을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자고 다시 일어나면 할머니가 내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실 것만 같았다.

하지만 장례식장 다음날에도 할머니의 영정은 그대로 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둘째 날, 할머니의 친한 지인들과 동네 이웃들이 아침부터 할머니를 조문하려고 방문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고 하염없이 울었다. 통곡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가족도 아닌 남인데 이렇게 할머니의 부고를 서글프게 받아들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진심이 다른 이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날, 건실한 청년 한명이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한 후 다가와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할머니 덕분에 힘든 시기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못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에게 들어보니 그 청년은 할머니가 자주 가던 마트에서 일하며 고시 공부를 준비하던 청년이었는데 말 수도 없고 직원들에게 꾸지람을 자주 듣는 것을 본 할머니가 안쓰러워서 집에 초대해 식사도 대접하고 반찬도 든든히 싸 주셨다고 한다.

일과 공부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청년에게 어느 날,  
*"녀석아 공부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고시 공부 그렇게 해서 되겠어? 할머니가 밥은 해 줄 테니까 당장 일 그만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라고 말하셨다고 한다. 그렇게 청년은 일을 그만두고 고시에 몰두했지만 잘 안 됐다고 한다. 하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보살핌을 받으면서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 지금은 진로를 틀어 사회 복지사로 일하며 과거의 자신과 같이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할머니에게 항상 감사드리며 살고 있단다.

이미 눈치를 챌겠지만, '커피 할머니'는 나의 외할머니이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랐다. 외할머니가 남긴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것, 주어진 상황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손을 먼저 내밀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외할머니가 좋아하셨던 믹스커피를 마시며 할머니가 이웃들에게 '참사람'이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참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사랑의 손길을 내민다.



## 「프리워터」 독서편지 먼 길을 걸었을 호머에게

여의도중학교 성시온

가끔 내용이 궁금해지는 책을 만나곤 하는데, 네 얼굴이 나와 있는 책이 딱 그랬어. 흑인아이의 얼굴과 '프리'로 시작하는 책 제목으로 나는 대충 책 내용을 넘겨짚었어. 아마 정말 많은 영화나 책에서 다룬 흑인의 인권문제가 아닐까 하고. 그런데 '워터'라는 단어가 이 책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했지. 워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했어. 공짜로 주는 물, 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표지의 네 얼굴과 어울리지 않았거든.

내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재작년 봄쯤일 거야. 우리 학교에 새 친구가 왔어. 백인이었지만, 생김새와 말투가 같은 반의 캐나다 친구들과는 거리가 멀었어. 그 아이의 이름은 다리아였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왔다고 했어. 그때가 아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시작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을 거야. 나는 단순히 전쟁 때문에, 그냥, 다리아가 캐나다로 이사를 왔다고만 생각했거든. 하지만 다리아와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에 대해 알아갈수록,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 친구는 어떻게 이 먼 캐나다까지 오게 되었을까? 아버지는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하는데, 왜 아빠 없이 엄마만 함께 온 걸까. 분명 다리아 친구들도 있을 텐데, 왜 다리아 한 명만 우리 학교로 온 걸까? 같은 질문 말이야. 하지만 다리아는 자신의 이야기만 전할 뿐, 다른 사정은 자세히 물어볼 수는 없었어. 뭔가, 물어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러다가 너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 난 사실 네가 노예 생활할 때 겪은 이야기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모두가 사람인데, 그토록 같은 사람끼리 서로를 헐뜯고 괴롭히며 고통스럽게 하는지, 무섭기까지 했어. 노예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최초로를 들고, 인간을 동물, 아니, 도구 취급밖에 하지 않는 서글프고도 생생한 너의 이야기를 보며, 분하기까지 했지. 그리고 그런 고통밖에 없는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희망을 품고 자유를 찾아 떠난 너의 행동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당연하다고 누구나 용기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다리아와 다리아 엄마의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씩 풀리게 되었어.

호머, 정말 슬픈 사실을 하나 말해줄까. 나는 네가 살았던 시대에서부터 한참 뒤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 나는 아직 어른들의 정확한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줄 안다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파. 그런 일이 너무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다리아가 우리 학교까지 오게 되었던 거야.



다리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흘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폴란드로 도망을 갔고, 다음에는 독일과 영국에서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캐나다로 왔어. 그렇게 1년이 걸렸대. 놀랍지 않니? 나는 일주일만 집을 떠나 있어도 힘들고 집에 가고 싶은데, 다리아는 1년 동안 엄마와 함께 남의 집에서 지내며, 전 세계를 떠돌아서 캐나다까지 오게 된 거야. 그리고 아빠는 전쟁해야 해서 우크라이나에 남아야 했고. (다리아가 가끔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알게 된 사실이야.) 가장 슬픈 일은 다리아에게는 언니가 있었다는 거야. 전쟁이 나면서 언니를 잃었다고 하더라고. 나는 사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노예제도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제대로는 몰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아직 전쟁 중이지만, 전쟁을 70년째 쉬는 중이래). 그렇지만, 노예제도이든 전쟁이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네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어.

다리아가 캐나다로 올 때 1년간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피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네가 노예 생활로부터 도망치는 과정에서 슬레먼 아저씨, 그리고 프리워터 사람들 등 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던 것은 맞아. 하지만 네가 프리워터로 올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너의 자유를 향한 갈망이라고 생각해. 다리아의 엄마가, 아빠를 남겨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딸 하나를 잃는 상상도 못 할 아픔을 겪었지만, 끝내는 다리아와 함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온 것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건, 살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강한 희망의 시작임을 너의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

호머, 너에 비해선 난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나도 나름의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 난 어른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참 컸어. 그런 고통 앞에서 나는 때로는 상황을 무시하고, 때로는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며 그 일을 이겨내려고 노력해 왔어. 그리고 내가 힘든 일들을 겪을 때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앞으로 내가 자라도 이런 일은 반복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이겨내는 법을 지금 배우는 거라고 말이야. 가끔은 그런 말이 나를 힘이 빠지게 할 때도 있더라고. ‘이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런데 호머, 너의 담대함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 어차피 세상이 늘 편안하고 즐거울 수 없다면, 나도 너처럼, 나만의 ‘프리워터’를 향해 그냥 걸어가 보려고 해. 나에게도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상황에 좌절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이 와도, 어쨌든 숨 쉬고 살아있는 한, 오늘의 하루를 걸어가면 되는 거니까.

호머, 네가 “우리는 프리워터에 왔다.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한 말이 난 참 마음에 와 닿았어. 긴장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그곳이 진정한 너의 집이 되길, 그리고 그곳에서 너의 진짜 삶이 오래오래 이어지길 정말로 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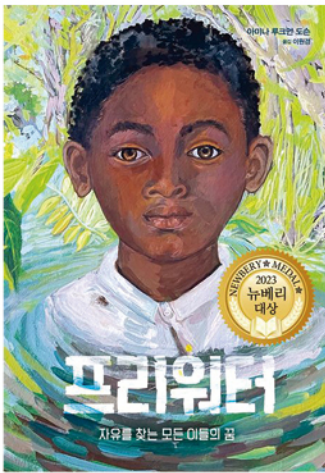
-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시인이가

추신 : 다리아에게 너의 책을 보내주려고 해. 다행히 영어책이 있어서 다리아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



‘프리워터’는  
어떤 책?

##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바라보기



이 책은 미국의 노예제도와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다. 18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노예였던 12살 호머가 동생과 함께 농장을 탈출해, 울창한 넝쿨과 숨겨진 문, 하늘다리를 건너 습지에 숨겨져 있는 탈주 노예 공동체, ‘프리워터’에 살게 되는 이야기다. 주인공인 호머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기며 힘겹게 탈출해 프리워터라는 판타지 같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는 비슷한 시대 배경인 ‘허클베리핀의 모험’도 얼핏 떠올리게 한다. 속도감 있게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여러 사건들 속에서 노예제라는 잔혹한 현실 가운데 발견하는 보편적인 사랑과 우정, 가족애 등이 감동을 준다.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 저항하는 사람,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인종차별의 편견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의 대비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공기처럼 맑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재미있는 동화책들을 읽으며 행복해 하던 어린 시절의 저는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살면 좋겠다는 꿈을 가졌고 현재 사서라는 직업을 통해 책과 가장 가깝게 살고 있습니다. 교육청도서관 사서로 30여년동안 일하며 지금은 도서관 과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다양한 독서문화행사와 정보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독서문화 확산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 보람을 느낍니다.

권 현 주

서울특별시교육청 고덕평생학습관 정보자료과장(사서)



# 2월, 별이 쏟아지는 겨울 밤하늘 속으로

별자리 관측을 위한 꿀팁 안내

알고 계셨나요?

겨울의 끝자락인 2월은 맑고 투명한 하늘 덕분에  
밤하늘 관측을 즐기기에 최적의 시기라는 사실!  
이번 달에는 별자리를 관찰하며 겨울의 낭만을 즐기고  
자연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즐거로운 청소년 생활이  
밤하늘 관측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 2월의 대표 별자리

### 오리온자리

겨울 하늘의 대표 별자리이자 그리스로마 신화의 사냥꾼에서 이름을 딴 오리온자리는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중 하나입니다. 허리띠처럼 이어진 세 개의 별(삼태성·오리온의 허리띠)을 먼저 찾는 것이 핵심! 이를 중심으로 위아래 밝은 별들이 위치하며 전체적으로 오리온의 형상을 띠니다. 특히 베텔게우스와 리겔은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빛나며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지요.



### 쌍둥이자리

2월 하순부터 머리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쌍둥이자리는 겨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별자리입니다. 오리온자리를 먼저 찾으셨다면, 그로부터 북서쪽을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선명하게 밝은 별인 카스토르(형)와 폴룩스(동생)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두 별의 밝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



### 황소자리

많은 사람들이 주황색으로 빛나는 황소자리의 알파별 '알데바란'에 매혹되고는 합니다. 주황색으로 밝게 빛나는 그 별은 황소의 눈을 상징해요. 황소자리 역시 시작점은 오리온자리부터! 오리온자리의 위쪽을 주의 깊게 살펴며 앞서 설명드린 알데바란을 찾으면 그 주변으로 V자 형태의 황소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황소자리의 하이라이트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일곱 자매)입니다. 육안으로도 작고 뾰뾰한, 아름다운 별들의 무리를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 ■ 별자리 관찰을 위한 팁

### 하나, 관찰 장소 선택

반드시 빛 공해가 적은 어두운 지역을 선택하세요. 도시보다는 산이나 시골에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한 별을 만날 수 있어요. 국내에서 추천하는 지역은 강릉의 안반데기, 영월의 별마로천문대, 태안의 운여해변, 강화도의 광성보, 양평의 벗고개터널 등이 있습니다.

### 둘, 적절한 시간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진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추천해요. 이 시각에는 대기의 난류가 줄어 먼지 등의 영향이 더 적습니다. 또 하나의 팁은 달빛이 없는 신월(달이 보이지 않는 시기) 근처의 밤에 더욱 선명한 별자리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

### 셋, 필요한 장비

육안으로도 많은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지만, 쌍안경이나 천체망원경이 있다면 더 세부적인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쌀쌀한 2월의 밤을 대비해, 복장은 따뜻하게! 목도리와 장갑, 모자, 패딩을 꼭 챙기기를 권장합니다.

### 넷, 어플리케이션 활용

만약 별자리 관측이 처음이라면, 밤 하늘에서 쌍둥이자리나 황소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별자리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아 활용한다면 실시간으로 별자리와 행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겨울의 막바지라고 하지만 아직은 쌀쌀한 2월, 그럼에도 무한한 우주의 이야기를 발견하기에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는 따뜻하게 챙겨 입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아요!



# 2025 체.인.지 한일교류 현장 이야기

##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는 이틀 간의 여정

교보교육재단은 우리사회의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체험중심, 인성개발, 지혜함양 중심의 리더십&팔로워십 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의 사회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 '체.인.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에서 <2025 교보 글로벌 체인지 아카데미 - 한·일 청소년 국제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재단의 창의리더십 체.인.지 프로그램을 우수하게 수료한 한국 청소년들과 일본 도쿄 야스다학원의 중·고등학생 36명이 참여하여,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째 날인 5일, 교보교육재단 최화정 이사장님과 야스다학원의 시다 켄잇찌 부교장 선생님의 환영사, 그리고 양국 대표 학생들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나라 청소년들은 협력 및 창의성을 강조한 '마시멜로 챌린지', '모자이크 퀴즈' 등의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해 서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이어 조별로 서울 역사박물관, 인사동,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탐방하고 인생네컷 사진촬영, 쇼츠 찍기 챌린지 등의 경험을 함께 하며 양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이해를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인 6일에는 나전칠기 키링 만들기를 통해 두 나라 전통 공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우고, 전통과 창의적 표현이 어우러지는 과정을 경험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점심시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을 함께 먹으며, 일본의 음식문화와 비교해보면서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각 조별로 이틀 동안 탐방했던 장소와 경험했던 내용을 나누며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언어의 장벽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소통과 우정을 나누었던 감동적인 순간들에 대해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서로 나누는 교환식을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이틀 간의 프로그램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향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장과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제8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지난 1월 17일,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제8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청소년 인성독서 '책갈피' 사업을 통해 매년 전문가와 함께 12권의 인성도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은 12권의 책갈피 인성도서 중 한 권을 읽고 책 속의 주

인공, 작가, 가족 등에게 독서편지를 전하는 공모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대상과 상금 등 대회 규모를 확대하여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가 작품을 응모했습니다.

이 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와 가족, 친구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최화정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오세란 평론가님의 총괄 심사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상한 친구들이

차례대로 나와 상장을 전달받았고, 마지막으로 대상을 수상한 여의도중학교 성시온 학생이 프리워드(아미나 루크먼 도슨)의 주인공에게 쓴 독서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성시온 학생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내며,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아픔이 와도 오늘의 하루를 걸어가면 된다'는 문장으로 수상작 낭독을 마무리하여 시상식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이후에는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수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상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책갈피 도서를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갈피를 찾아가길 바라며, 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가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8회 책갈피 독서편지 공모전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인 교보교육재단이  
참사람 육성과 건강한 교육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24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27년간 25만 여명의 청소년에게  
인성·리더십·생명분야의 특화된 교육 사업을 실시해  
참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운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민교육발전을 위해 참사람을 키우고,  
건강한 교육 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교보교육재단  
2024년 '국민교육발전 유공 포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참사람 36.5℃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가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